

보도자료

2011년 9월 30일(금)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방송통신진흥정책과 오용수 과장 (☎750-2150)

방송통신진흥정책과 좌미애 사무관 (☎750-2151)

방통위-문화부, 국내 드라마·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지원방안 협의

- 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: 최시중)와 문화체육관광부(장관: 최광식)는 9월 30일에 제2차 ‘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’(이하 조정협의체) 회의를 개최하여 국내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지원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.
 - 이번 2차 조정협의체는 지난 9월 7일 방송통신콘텐츠 분과 위원회(국장급) 실무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으며,
 - 조정협의체 공동위원장인 신용섭 방통위 상임위원과 모철민 문화부 제1차관을 비롯하여, 조정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양 기관 담당 국·과장급 공무원이 참석하였다.
- 먼저, 국내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과 단막 드라마의 활성화를 위하여
 - 정부는 드라마 편성과 관련해서 시간축소 등 업계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출연료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제작비의 지급관행을 개선하기로 협의하여 업계간에 합의한 ‘외주제작 참여자 보호를 위한 합의문’(‘10년 11월, KBS·MBC·SBS와 드라마제작사협회 체결)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

-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작품 및 신인 연기자·작가의 발굴을 위하여 단막극 제작지원(30억원 규모)과 전용상영관 확보를 추진하고 단막극 페스티벌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.

※ '11년도 단막극 페스티벌 : '11. 9.22~24(단막극 12편 상영 및 세미나 개최),
 객석 점유율 80%, 홍보용 홈페이지 43,000명 방문

- 특히, 드라마의 사전제작 활성화를 위하여 독립제작사가 제작하는 미니시리즈의 경우, 사전제작 50% 이상인 작품에 한하여 제작비를 지원하고 방송사의 사전심의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

- 또한, 방송작가·PD 등 방송현업인 재교육 강화(23억원) 및 '드라마프로듀서 스쿨', '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'(5.4억원) 등 예비인력 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를 (총 예산 2,276억원, '10~'12년) 건립하는 등 인프라 구축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하였다.

- 그리고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산업 육성과 방송시간 확대를 위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위하여 공동 노력하기로 하는 한편,

-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하여 신규 애니메이션 제작을 지원할 수 있도록 '12년 '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 기본계획' 수립시에 방송사가 국내 애니메이션 편성을 확대하는 재정지원 방안을 반영하기로 하였다.

- 아울러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립중인 ‘방송통신기본계획(안)’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였다.
- 앞으로도 방통위와 문화부는 조정협의체의 운영을 통해 방송통신콘텐츠 및 방송통신광고 관련 중복적인 업무를 조정하고,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지원 사업 발굴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.